

김산 군수 “세계로 비상하는 더 큰 무안 실현 ‘총력’”

●민선 8기 2주년

최대 현안 ‘도농균형발전’ 설정...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위터블 시티 브랜드 확산

김산 무안군수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세계로 비상하는 더 큰 무안 실현을 위한 소통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김산 군수는 바쁜 농번기를 감안해 민선 8기 주요 성과 ppt 발표, 2040 장기발전비전 선포 등을 직원 정례조회로 간소화해 2주년 기념식을 대체했다.

주요 성과 보고에는 기존 보고 방식을 벗어나 직원 300여명이 무선 리모콘을 통한 실시간 투표로 군민제opard가

높은 사업을 선정,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하며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민선 8기 최대 현안을 도농균형발전에 두고 보건소 이전과 복합문화센터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보건·문화·예술·교육 시설을 갖춘 지역 거점을 탄생시켰다.

농촌 지역에는 정계면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으로 대학과 지역 콘텐츠를 연계한 로컬상권 공간을 조성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지역 활성화와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가 최근 직원 정례조회에서 민선 8기 주요성과, 2040 장기발전비전을 선포하며 현안 사업을 공유했다. (무안군 제공)

남양오룡 신도시에는 증가하는 인구수에 대비해 문화·복지·생활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2025년 남양신

도시 체육시설, 2026년 오룡 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항공·점단 산업의 메카가 될 무

안항공특화산업단지(MRO)를 조성해 100년 미래 먹거리 토대를 마련했다. 항공MRO, 항공물류, 부품 등 업종이 입주 예정이며, 지난 3월에는 화합물반도체 7개 기업과 1천34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도자복합산업 특구 지정, K푸드 융복합 산단 개발 업무협약 등 무안의 미래비전도 만들어가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다양한 국제선 유치에 성공해 상반기에만 이용객 20만명을 넘어 올해 목표인 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예상돼 서남권 중추공항으로의 역할을 회복하고 있다.

특히 김산 군수의 대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갯기좋은 도시! 위터블 시티’가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갯기좋은 환경 조성과 보행문화 확

산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위터블 시티 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무안군 위터블시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으로 산책로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지난 5월 공모 선정된 스마트 도시 솔루션 사업으로 스마트 산책로·황단보도 등 안전한 도시시설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도 이어간다.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일몰·일출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리포커피 서남해안 명품경관 조성 사업으로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지난 2년 오로지 군민 행복과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군정을 펼쳐왔다”며 “세계로 비상하는 더 큰 무안 실현을 위해 10만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행복 무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직원 복지·워크숍 장소 각광...완도 해양치유산업 ‘탄력’

시설 이용 업무 협약 기관·단체 잇따라

완도군이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이후 업무 협약을 맺는 기관·사회단체가 늘면서 해양치유산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4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청정한 해양환경과 해양기후, 해수, 머드,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국내 최초의 해양치유 시설이다.

완도군은 최근 완도해양경찰서와 전남농협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해양치유산업 홍보 ▲소속 직원 복지 증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협조 체계 구축 ▲해양치유 시설과 연계한 행사, 워크숍, 교육, 회의 등 장소 활용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 등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해 11월 말 해양치유센터 개관한 이후 3만명이 넘게 다녀가며 해양치유 효능에 대해 입

소문이나 해양치유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해양치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관·사회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전남도교육청, 현대삼호중공업, 아진산업㈜,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시군구 단위 노조, 전남광역시체육센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할 기관·사회 단체를 늘려 상생 협력하고, 홍보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완도=윤보현기자

한편, 완도해양치유센터는 3인 이상 가족은 30%, 전남도민과 10인 이상 단체는 20%,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10%를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자리한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8월31일까지 주요 관광지 무료·할인 이벤트도 마련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 후 완도타워와 장보고기념관을 찾으면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완도타워 모노레일(2천 원), 질라린(3천 원), 청해포구 촬영장(20%)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도=윤보현기자



강진 ‘불금불파 시즌2’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EDM DJ 파티를 즐기는 모습. <강진군 제공>

‘흥 폭발’ 강진 불금불파 시즌2 상반기도 “대박 행진”

누적 관광객 9천여명...9월6일 하반기 재개장

강진 ‘불금불파 시즌2’가 누적 관광객 9천여명을 달성하며 상반기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6월29일 병영면 병영시장 일원에서 개최한 ‘불금불파 시즌2’는 강진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로, 지역 인구 감소 위기를 대규모 관광객 유입을 통해 극복하고자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누적 관광객 9천여명과 판매 실적 1억5천400만원을 달성하

며 또 한 번 대박을 터트렸다.

매주 금·토요일 오후 4~7시 열리는 강진 불금불파는 문화예술마켓, 친환경 자전거 여행, 하멜 감성 텐트촌, 문화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지역 어르신들이 손수 기른 농산물을 판매하는 ‘할머니장터’와 ‘농부장터’를 운영했다.

오후 7~8시 진행된 EDM DJ 파티는 불금불파의 백미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시즌2를 맞아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불금불파의 대표적 먹거리인 병영불고기, 하멜촌 커피와 맥주에 더해 피자과 파스타를 앞세운 청년세프존을 새롭게 선보여 MZ세대와 가족단위 관광객의 취향을 저격했다.

‘강진 불금불파 어린이 댄스 경연대회’는 곳곳에 날세에도 불구하고 11개 팀이 참여해 열띤 대결을 펼치며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한편, 강진 불금불파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휴장 후 오는 9월6일 재개장한다. /강진=정영록기자

해남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 취약계층 냉·난방비 차등 지원

해남군은 4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용 에너지원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 차감 또는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유사 사업인 등유바우처, 연탄바우처(쿠폰)와는 중복 신청이 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 세대 29만5천200원, 2인 세대 40만7천500원, 3인 세대 53만2천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천300원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1만5천원 가량 인상됐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1일부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 사용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해남=박필용기자

“군민 행복한 신안 만들기 총력”

김대인 부군수 취임

김대인 제33대 신안부군수가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김대인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이 제33대 신안부군

수로 부임했다. 김 부군수는 취임식을 생략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임용장을 받고 실화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업무를 시작했다.

영광 출신인 김 부군수는 1991년 7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전남도 외자유치



팀장, 투자기획팀장, 투자유치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 부군수는 “신안군 부군수로 취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문화예술이 꽃피는 신안, 사계절 꽃피는 신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30여년간의 공직 경험과 지식을 쏟

아주어 민선 8기 주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신안군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의회와 협력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신안군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안=양홍기자



영암군, 청소년 기후위기 이해력 높인다

탄소중립농업학교 운영...농부와 유기농생태마을 체험 등도

영암군은 4일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2024년 탄소중립농업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기후위기시대 사람과 생태의 조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영암군농업기술센터가 마련했다.

7월28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하면, 단체별 일정은 조율한 다음 교육이 진행된다. 탄소중립농업학교는 필수 이론 2시간, 선택 체험 2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론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이야기, 독후활동 및 영상 시청 ▲기후위기

와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기후위기 문제 이해를 높이고, 생활 속 탄소중립 방법을 알린다.

체험은 ▲로컬 및 푸드테러피를 통한 체험활동 ▲농부와 함께하는 유기농생태마을 투어로 농업·농촌 탄소중립을 경험한다.

영암군은 유치원과 초·중·고를 우선해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신청서를 작성해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061-470-65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나동호기자



목포 삼학동 ‘이동복지 상담실’ 운영

이미용권 배부·1대1 맞춤형 복지상담 제공

목포시 삼학동행정복지센터는 4일 “지난 1~2월 경로당 4곳을 방문,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복지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1대1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상담 서비스다.

이번 상담실에는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여름철 건강관리 교육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120) 운영 ▲맞춤돌봄서비스 ▲긴급복지지원 ▲복지기동대 등 각종 복지제도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민간 서비스에 연계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기자

또한 목포 의대유치 캠페인과 신안농협 후원 구급의료봉사 지원을 통해 어르신에게 의료 혜택의 접근성과 이에 따른 이점을 알렸다. <사진>

현장을 찾은 한 어르신은 “날도 덥고 동까지 걸어가기 힘들었는데 경로당이 찾아가고 이미용권을 직접 배부해주고 상담까지 진행해주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현미 삼학동장은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도록 복지행정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